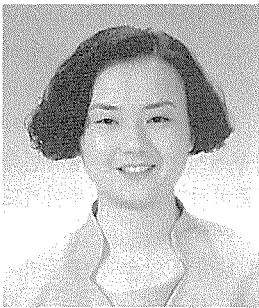


석유협회보
창간 13 돌

“석유협회보에 바란다”

석유협회보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각종 에너지
관련 정보와 연구논문,
정책자료등 우리 업계에
증사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孫 銀 姬
〈쌍용정유 홍보실〉

『아직 원고를 못쓰셨다구요? 안돼요. 꼭 써주셔야 돼요. 이번 주까지는 무
슨일이 있어도...』

정리하고 정리해도 금새 쌓이는 책, 자료, 원고, 참고 사진, 확인전화마다 척척
들어오는 원고는 없고, 시간만 더 달라는 말뿐.

월간지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매달 겪는 이 난리(?)를 이해할 것이다. 그렇게
어렵게 마감을 넘기거나도 꼭 뭔가 하나쯤은 빠져있기 예사고, 하지만, 책은 제 날
짜에 나와야 되고, 편집하고 필름교정보고 나면 한숨 쉴 틈도 없이 이번달 책이나
오기도 전에 다음달 책 기획에 들어가고.....

한달마다 되풀이 되는 이 과정을 63번이나 계속하고 있는 나는 문득문득 이런 질
문을 던진다.

「이렇게 난 한달 한달을 정신없이 보내는데, 과연 내 맘의 소산을 우리 사우들은
어떻게 대할까. 이번 달도 정말 알찬 읽을거리를 담았을까? ...」

흔히들 사보의 기능을 ‘커뮤니케이션’으로 본다. 그것을 좀더 세분하면 ‘조직커
뮤니케이션’과 ‘대외적 PR’ 기능으로 분류된다.

조직커뮤니케이션이란 종업원 개개인 또는 상하간·노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을 위해 지위나 계급이나 업무 등으로 구별된 마음의 벽을 허무는 일이다. 그리고
회사방침을 알리고 인간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가운데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으로 모두를 응집하는 것을 말한다.

‘대외적 PR’ 기능은 그야말로 대외에 회사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말
한다. 요즘 많이 발간되는 다양한 사외보를 생각하면 된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떠올리며 매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만, 갈수록
어렵다고 느껴진다. 과연 우리 회사의 경영이념을 잘 전하고 있는가. 사우들의言
를 잘 드러주고 있는가. 1,500명의 사우들을 하나로 묶는 기획기사는, 모두가
흥미를 가지고 읽을 특집은?

책을 만들기 전에도 만든 후에도 고민은 계속된다. 이런 고민은 나뿐 아니라 「석
유협회보」를 만드는 편집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 회사도 아니고 정유업계에
속한, 각기 특성 강한 5개 회사를 하나로 묶어 공통된 관심사를 다루어야 된다는
것에 걱정거리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5대 정유사 12,000여명의 종업원들의 공통 관심거리는 무엇일까? 이
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는? 정보 위주로 다루면 너무 딱딱해지지 않을까? 그러
면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무수한 고민을 하는 석유협회 홍보실 편집팀들이 눈에
떠오른다.

석유협회보는 분명 내가 만들고 있는 사보와는 그 특성이 다르다. 조직원들의 활발한 의사소통에 큰 중점을 두는 사보처럼 그 많은 협회에 관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와도 성격이 크게 달라야 한다. 그렇다면 석유협회보는 왜 필요한가?

현대를 '정보의 홍수시대'라 말한다. 사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듯 요즘 각종 신문, 잡지 등 읽을거리가 아주 풍부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읽을거리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석유협회보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각종 에너지관련 정보와 연구논문, 정책 등 우리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정보속에서도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석유협회보가 많은 사람들 손에 읽히지는 않아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꼭 필요한 사람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이다.

석유협회보를 접한지도 3년. 매달 우리 회사 관련 기사를 써보내고, 우리 회사 사우들을 소개하면서 정이 들었다. 3년 전에 비해 내용면에서도 -물론 전문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훨씬 친근해졌고, 만화나 수필 등 부드러운 성격의 난도 많이 늘어 정유업계에 종사하지만 나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많아졌다. 무척 긍정적인 발전이라 본다. 이런 변화를 지켜 보면서 석유협회보에 바라는 점 몇가지를 적어볼까 한다.

우선, 석유협회보만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을 좀 넓혀달라는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쏟아지는 정보속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석유협회보에 정유업계에 관련된 다양한 뉴스와 정보가 담겨있으면 좋겠다. 에너지 관련 뉴스에서 상식, 그리고 전문적인 내용의 보고서나 논문까지. 그러면 정유 5사 전 직원들이 좀더 흥미로운 마음으로 읽고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또 각 정유사 별로 독특한 모임이나 행사, 인물취재 등을 소개해 부드러운 일면도 보여 주었으면 한다. 이런 성격의 난은 전문적인 성격의 난과 확연히 구분해 편집과 디자인에 과감한 변화를 줄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석유협회보를 펼치면 다양한 정보와 부드러운 성격의 난이 골고루 배합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하지 않게 읽어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책을 만드는 한 사람으로서 책의 디자인이나 글자 크기, 편집방식에도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욕심을 부려본다. 자칫 전문성을 강조하고, 정보지의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포장(디자인) 측면을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내용이 아무리 딱딱하고 건조하다 해도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 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적당한 시기에 외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분명 독자들의 시선을 끄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평소 석유협회보를 보면서 느낀 점 몇가지를 적어보았다. 하지만 나도 내가 만드는 책에 항상 미흡함을 느끼는 바라 부끄럽다.

「정유업계를 알려면 석유협회보를 읽으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알찬 내용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글을 맺을까 한다. ♡

석유협회보에 정유업계에 관련된 다양한 뉴스와 정보가 담겨 있으면 좋겠다. 또 각 정유사의 독특한 모임이나 행사, 인물취재 등을 소개해 부드러운 일면도 보여 주었으면 한다.